

# 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긴 하지만 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신 팀장님, 과장님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8월31일 서울 삼성동 COEX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회 ESCO-Mart. ESCO인들의 한 마당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는 모두 12명의 ESCO 관계자들이 산자부장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였던 이 날 단상에는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의 양정구 대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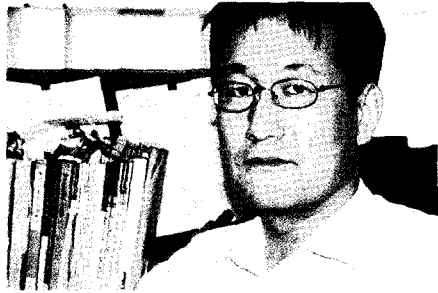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공단의 ESCO팀은 ESCO 등록에서부터 제반 제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ESCO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실무부서이다.

양 대리는 4명인 ESCO팀의 중추로서 ESCO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ESCO 업무에 능통한 ‘해결사’ ‘준비된 ESCO’ 보면 흐뭇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92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한 양 대리가 ESCO업무를 맡은 것은 2000년 1월부터. 이전에는 자금심사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이나 자금적인 측면에서 ESCO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리는 데는 두루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경제불황의 여파로 에너지사용가들이 절약시설투자 사업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ESCO들은 단순기술만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이 아니라 독자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ESCO중에서도 우량 ESCO에게는 자금부문과 관련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ESCO들은 ‘해바라기’ 처럼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 안주할 것



양정구 대리의 책상 앞에는 참을忍자가 세 개나 씌어져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아니라 스스로 금융 파이낸싱, 기술력 등 벤치마킹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인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대리가 ESCO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흐뭇했던 것은 등록시키자마자 바로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하는 ESCO가 나왔을 때였다. 물론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ESCO의 경우 충분한 준비와 능력을 갖춘 다음 ESCO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ESCO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양 대리의 생각이다. 반면에 답답한 경우도 있다. 자기 회사 하나만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할 때 더욱 그렇다.

### 참을忍자 생각하며 업무에 최선 자기개발 위해 기술사에도 도전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ESCO사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단에서는 제도개선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몇 가지 아이টে를 개발 중에 있다고 양 대리는 말했다. 물론 ESCO들이 스스로 재료를 만들어 자생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양 대리는 거듭 강조했다.

“ESCO사업은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그 효과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산업체 등 민간부문이 부족한데 이는 ESCO들의 기술력 미비 및 진단능력 부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단능력 배양을 위한 ESCO들의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SCO팀의 업무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때문에 잠무나 스트레스가 시달리기도 하지만 팀원들 서로가 돕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 작성으로 현장출장으로 분주하지만 '거대한 뿌리'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에 양 대리는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



○ 양정구 대리는 제5회 ESCO-Mart에서 ESCO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2001년 8월 31일 COEX).

는 현재 공조냉동기술사에 도전 중이다.

양정구 대리의 책상 앞에는 참을忍자가 세 개나 씌어져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소신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다. 양 대리는 이번 산자부장관 표창을 계기로 더욱 ESCO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